

세계수영선수권·IDA 유치 올인

(국제디자인연맹)

광주시정

올해 광주시의 시정목표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 등 '메가비전(Mega Vision)'을 제시·구축하고 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특히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광주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을 현실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2014년 말 준공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제행사 유치로 광주 품격 업그레이드 = 시는 광주의 국제도시화를 위해 올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유치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31일 발표되는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총회를 반드시 유치해 글로벌 디자인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회가 유치되면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유명 디자이너 4000여명이 광주를 찾게 돼 2015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디자인엑스포 개최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전 세계 수영인구 10억명이 TV 등 미디어로 시청하고, 202개국 2만여명의 수영선수들이 참여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7월 19일 선정)에도 올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만 4000명

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남북 대학생 단일팀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5월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시작으로, 6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청년지도자 모임인 'JCI아태대회', 10월 '세계한상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시 특별법 제정, 세계적 민주·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광주 군용비행장 및 무등산 방공포대 조기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실현 =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보편적 복지 구현을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여성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심보육환경을 구축하

인권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로 품격 높여

자동차 100만대 기지 등 대선공약 현실화 주력

발주공사 최저가 입찰제 '청렴 광주' 정착

시는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행사 성공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음식에서부터 숙박, 통역, 소림, 교통, 관광 등 7개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실천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 현실화로 광주 발전 견인 = 광주시는 새 정권 출범이 광주 발전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새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광주의 성장 속도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지역공약이 조기에 가시화돼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과 2단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광주 탄소중립도

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등도 개선하는 한편 손자녀 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에 조손가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게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폭력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 영향 평가제 실시 및 모든 발주공사에 터키방식을 지양하고, 최저가 입찰제 등을 도입, '청렴 광주'의 이미지 정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청년 대학생 참여 '생생토크' 추진, 시정 및 생활민원 안내 창구인 120콜센터 연중 무휴 운영, 시정분야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시의회·시민단체와의 소통 시스템 구축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마리나항 육성...전북 양식섬 첫삽

전남도정

전남도의 새해 도정 핵심은 돈이 되는 산업을 유치·발굴해 일자리를 만들고 친환경 녹색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전남'은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떠났던 도민들이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미래 식량 자원 보고인 바다를 개발하는 등이 2013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이다.

◇잘사는 전남 건설=올 해 전남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는데 방침이 짙어 30%에서 38%로 확대하고, 인증비 126억 원도 지원된다.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 회사 12개, 수도권 물류센터 2개, 나주 종합물류센터 등도 건립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역전략식품산업에 21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제조·가공업체 13개, 향토산업 15개를 육성한다. 또 전통발효 식품(9개), 전통술(4개), 마을반찬산업 제조시설 현대화(10개) 사업도 진행된다.

축산 분야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농가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에 186억원을 투입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을 통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이다.

수출 전략품목을 늘리고 전북 양식섬(30억원), 뱀장어 양식기술 개발, 키조개 육진주 산업화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127억원),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253억원) 등의 사업에 힘을 가한다.

어업인 출자 주식회사(4개)를 발굴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화 및 제품화(14억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깨끗한 전남의 산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섬 동물원인 사파리아일랜드(55억원), 테마섬 개발(40개섬), 뱀장어공원(19억원)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된다.

또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관람객 468만명을 불러들여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 해양리조트단지 조성(2개소), 해변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관광지를 정비하고 마리나항(3개소), 해양낚시공원, 해양복합레저공간, 뱀장어 체험 기반시설 등 이색 해양 관광 자원도 육성된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살기 좋은 마을을 건설한다. 한옥이 모여 있는 마을인 행복마을 600동을 건설하고, 마을 공동사업을 발굴해 귀농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휴양 전원마을·은퇴도시 만들어 일자리 창출

F1 코리아 그랑프리 적자폭 줄이고 대중화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 468만명 유치 심혈

다. 섬과 해양, 청정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우선 휴양 전원마을(10개소), 미니복합타운(4개소), 은퇴도시 및 휴양타운(2개소)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비마을기업 100개,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67개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물·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발굴도 진행된다. 한 국한의학연구원,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전남의 감정인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유기농 생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금의

하고, 소·돼지고기 이력제, 축종별 유통회사, 축산 허가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녹색축산육성기금도 594억원 배정해 놓았다.

전남의 핵심 도정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시험대에 오른다. 4회 대회를 맞아 적자폭을 줄이고,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F1 조직위가 F1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500억원에 달하는 대회 개최권료 인하 문제를 협상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최권료를 깎고,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함이다.

◇바다와 친환경이 화두=올 전남도정의 화두는 '바다'와 '친환경'이다. 미래



새해 새소망

다사다난 했던 한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찾아뵙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에 서면으로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밝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리앤케이화장품 광주상무지사 | 휘림건강 휘나하
문빈정사 | 나이스메디컬

